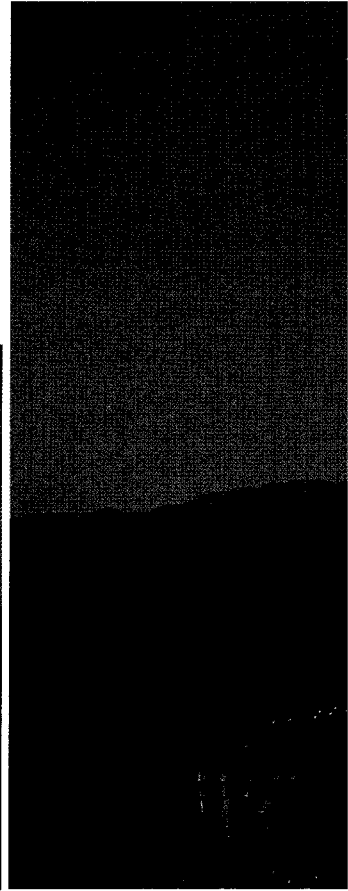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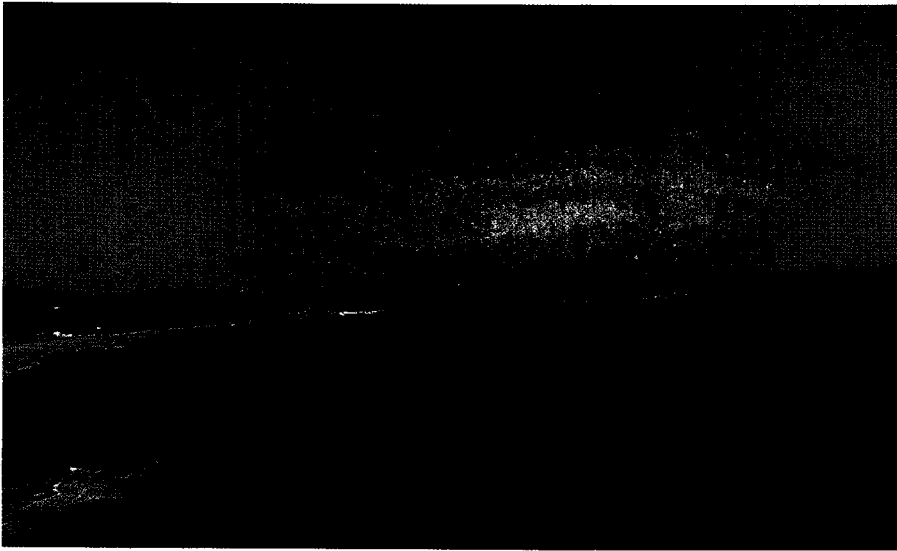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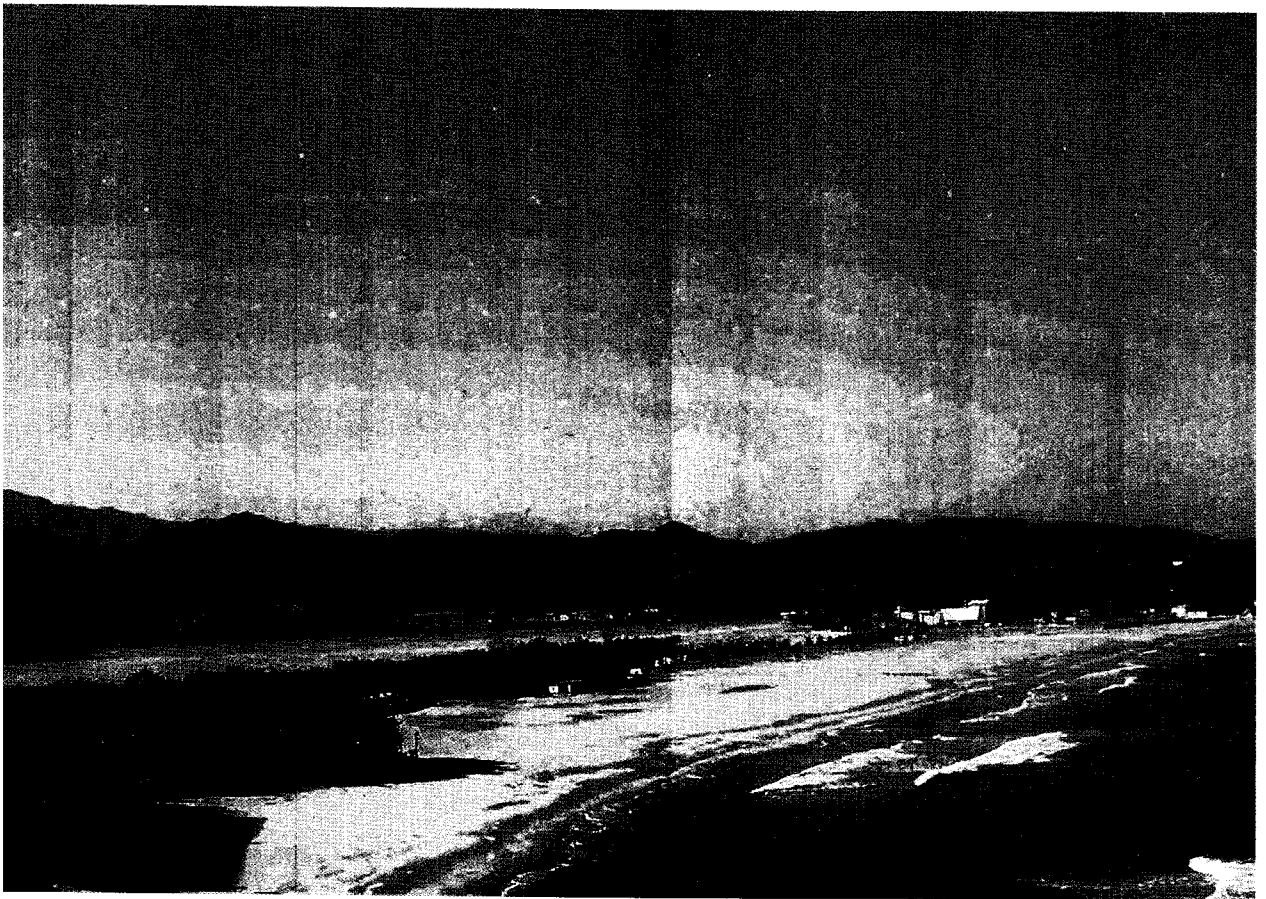


화진포의 성(城)과 닥터 셔우드 홀



동해안 최북단 '화진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별장, 국군장병 휴양소가 함께 있는 천혜의 휴양지이자 일제 침탈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한 닥터 셔우드 홀이 쓴 <조선회상> (번역, 김동렬)에 의하면 이 '화진포의 성'(일명 김일성 별장)의 원래 주인이 바로 셔우드 홀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청일전쟁 무렵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근대조선의 국내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일기와 편지를 근거로 작성된 소중한 역사서적이다. 그는 얼굴만 서양인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나 조선의 이름을 갖고 우리말을 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인물이다. 자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하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가서 의학공부를 하고 귀국한다.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진 죽음의 병인 결핵퇴치를 위해 최초로 해주에 결핵요양소를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가 만



든 첫 짚은 남대문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부족한 의약품 구입과 병의 심각성을 계몽하고자 일제의 집요한 방해를 감내하면서 국내,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 발매했다.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짚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과 대포를 함께 도안해서 신청했으나 일본 관료에게 호된 질책을 듣고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다시 남대문을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남대문은 조선의 상징이며, 성곽은 결핵을 막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그때서야 일본 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책에 '화진포의 성(城)'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진포를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극찬했고, 건물은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유럽의 어느 성(城)처럼 지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화진포 바로 이 건물에서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같이 온 영국인 성공회신부를 일제헌병이 간첩죄로 몰아서 현장에서 체포한다. 당시 일제는 고도 20m 이상을 촬영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저자에게도 그와 함께 화진포에 있었고 동해안 주변 사진을 가졌다는 이유를 들어 간첩죄로 몰아 구속시켰다. 많은 벌금을 내고 국외로 추방당한 부부는 인도에 가서 퇴직할 때

까지 결핵퇴치운동 등 의료 활동을 계속하였다.

8.15 광복 이후 북한군이 본 건물을 귀빈휴양소로 운영하면서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과 김정일 형제가 피서를 보낸 사진이 남아있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린다. 지역 군청에서는 지난 2005년에 지상 2층 건물로 복원시켜서 내부에 김일성 주석 부부 유사품, 한국전쟁과 안보 교육 자료 등을 전시하였는데, 원주인인 저자에 대해서는 벽면에 사진 한 장과 간략한 소개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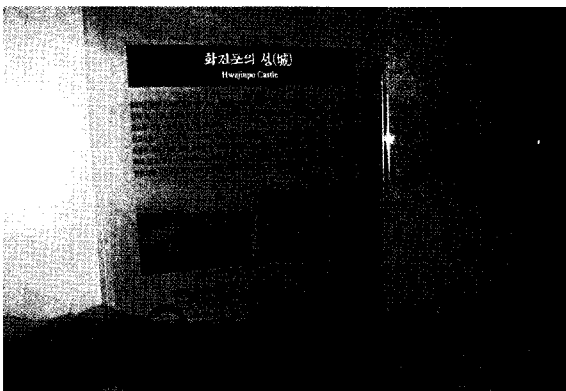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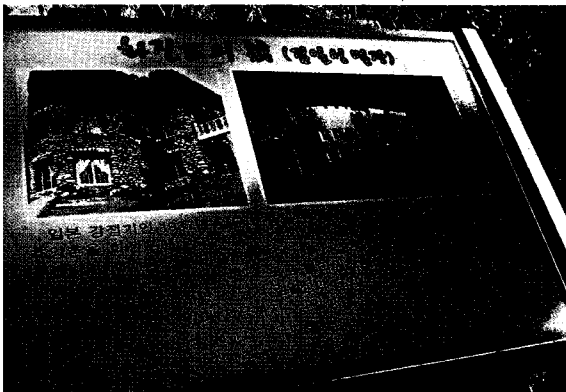
최근 인접지역에 새로 지은 DMZ 박물관에도 홍보 및 전시내용이 이와 일부 중복되므로 관청에서는 향토 사학자, 대한결핵협회, 유가족, 관련기관 등과 협조하여 본 건물의 한 층 정도를 닥터 홀 가(家)의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홍상제막, 크리스마스 썰, 유품)하고 일제 헌병의 만행 현장을 재구성해 놓는다면 관광객에게 홍보효과도 크리라 생각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썰은 건국 대통령이며 탁월한 외교력으로 공산주의와 싸워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킨 이승만 대통령과는 각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야 하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도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해 여름 캐나다에서 일시 귀국한 책의 번역자 김동렬 씨로부터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닥터 셔우드 홀의 부친은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인데 청일전쟁 무렵 평양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풍토병에 걸려 병사하였다. 모친도 의사였으며, 최초로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의 어머니'라고도 불렸다. 아내 역시 의사로 진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조선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후원금 지원을 호소하는 등 1인 5역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국내에서 결핵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 고칠 수 없고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해 숨기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할 정도로 우매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셔우드 홀은 전국에서 몰려온 결핵요양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닭, 염소, 돼지, 토끼 등 가축 사육, 농사 및 과수와 채소재배 방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서

위. 화진포 성이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글
아래. 화진포 성에 전시된 셔우드 홀 관련 자료



양인 농업전문기술자를 초청해 과학화된 영농 기법을 전수했으며, 오늘날 새마을 운동과 같은 활동을 펼쳐 소득창출과 농업지도자를 양성했다. 이처럼 닥터 홀 가족은 나라, 인종, 종교를 넘어서 무한한 헌신과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인생 말년도 캐나다 요양원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다가 생전 희망에 따라 한강변 외국인 묘역에 안치됐다. 이곳에는 부모와 아들까지 3대가 함께 안장돼 있다.

필자 역시 닥터 셔우드 홀이 가난한 조선인 결핵 환자 진료를 위해 최초로 크리스마스 썰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천명이 넘어서야 알았다. 지금은 편지 왕래가 적은 인터넷시대라 크리스마스 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금모금의 방법개선과 홍보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제도 또한 뒷받침되어야겠다. 금번 결핵의 발자취를 찾아 '화진포의 성'을 방문하

면서 필자 옆에는 닥터 셔우드 홀 부부와 일제헌병이 함께 있는 듯하고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금강산과 푸른 동해바다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총부리를 겨누었던 하늘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민족을 위해 이곳에서 자주 만날 것 같은 순진한 생각도 들었다.

언젠가는 화진포에서 남북정상이 평화통일과 화해를 위한 만남의 날을 소망해 본다. 화진포 철새인 백조, 고니와 이곳에 사는 갈매기들은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둥지도 마음대로 트는데…….

끝으로 '조선회상'이라는 귀한 책을 번역해 준 캐나다 교포 김동렬 씨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드린다.‡

이 글을 쓴 신준수님은 실향민 가정에서 태어나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남북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역 후에는 지역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